

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재무부,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9개국 관찰대상국 지정 '경상수지 흑자' 등 판단기준 일부 변경...검토 대상 확대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발표했다.

다만 재무부는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은 현재 평가 기준 3개 요소 가운데 1개만 해당하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이를 유지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년째 큰 폭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해 온 중국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개입을 포함해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점진적 경제 자유화 정책에서 비시장적

메커니즘과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미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전보다 검토 대상 국가를 늘리고 평가 기준을 조정·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다. 지난번 발표 당시 6개국에서 늘어

났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추가됐고 기존 대상국 명단에서 인도·스위스는 빠졌다.

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이나 '심층 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관찰대상국은 이들보다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2차례 의회

에 제출한다.

전체 검토 대상 교역국은 기존 12개국에서 이번에 21개국으로 늘었다.

판단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다만 예년까지 사용했던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경상수지 흑자 요건의 경우 기존 'GDP의 3%'가 기준이었으나 이번에 'GDP

의 2%'로 조정됐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의 경우 지속 기간이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바뀌었다.

또 주요 교역국의 범위는 기존 기준에선 교역 규모가 큰 12개국에 해당했으나 이번에 총 400억 달러를 충족할 경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로, 기준(200억 달러)을 밑돌았다. 또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 흑자 1% 미만 요건에 해당한다.

재무부는 "현재 한국이 2015년 제정된 법(교역촉진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무부는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40대 일본인 비행기서 급사 뱃속, 코카인 246봉지 발견

200여개가 넘는 코카인 봉지를 삼켜 운반하려던 일본인 남성이 비행기 안에서 숨졌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멕시코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멕시코시티를 출발해 일본 도쿄로 향하던 아에로멕시코 비행기 안에서 한 일본인 남성 승객이 이륙 직후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다.

남성의 상태를 확인한 승무원들은 멕시코 북서부 소노라주 에르모시요에 항공기를 비상착륙 시켰고, 긴급 출동한 의료진은 남성의 사망을 확인했다.

부검 결과 사망자의 위와 장에는 코카인이 든 길이 2.5cm, 폭 1cm의 봉지 246개가 가득 차 있었다.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뇌부종인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들은 사망자가 이륙 직후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현지 검찰은 사망자를 42세 '우도 N'이라고 발표하며, 그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를 떠나 멕시코시티를 경유해 일본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115m에 펠탑서 '집리인' 즐겨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벤트에서 한 참가자가 상드마르 공원 위로 115m 높이 에펠탑 2층에 800m 길이로 설치된 집리인을 즐기며 내려오고 있다. /AFP-연합뉴스

시리아 정부군, 도심·병원 무차별 공습

어린이 포함 민간인 21명 숨져

시리아 북서부의 반군 근거지를 겨냥한 정부군의 계속된 공습으로 28일(현지시간) 하루에만 도심과 병원 등에서 어린이 9명을 비롯한 민간인 최소 21명이 숨졌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이날 알레포주(州) 서쪽 끝 카프르 할랍의 변화가에서만 공습으로 민간인 최소 9명이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반군 연계 구조단체 '하얀 헬멧'은 이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산했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됐으며, 길가에 늘어선 상점 여러 개도 파괴

된 상태였다.

공습이 발생한 시각은 라마단 금식 기간이 지나 저녁이 될 무렵 사람들이 거리에 가득 몰렸을 때여서 피해가 컸다.

이날 인근 이드립주 카프르발의 다르 알 헤크마 병원에도 정부군이 발사한 포탄이 날아들어 건물이 심하게 부서졌다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피해 병원 측이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완전히 기능할 수 없는 상태"라며 병원 발전기와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까지 불에 탔다고 했다.

시리아는 2011년 3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촉발한 내전으로 9년째 신음하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 등이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미국과 터키 등이 반군을 지원하고 나서면서 내전이 장기화한 탓이다. /연합뉴스

바이러스 걸린 노트북 온라인 경매서 16억원 낙찰

21세기 최악의 컴퓨터 바이러스들에 감염된 노트북이 예술품 경매에서 우리 돈 16억 원에 팔렸다.

2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아티스트 귀오둥이 만든 '혼돈의 지속'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이날 미국 뉴욕의 한 온라인 경매에서 134만5천 달러(약 16억 원)에 낙찰됐다.

상상전자의 2008년형 검은색 10인치 노트북으로 만든 이 작품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랩톱 컴퓨터에 불과하지만,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낳은 최악의 바이러스 6개를 담았다.

2000년 '아이 러브 유'(I LOVE YOU), 2003년 '소빅'(Sobig), 2004년 '마이둠'(MyDoom), 2013년 '다크테킬라'(DarkTequila), 2015년 '블랙에너지'(BlackEnergy), 2007년 '워너크라이'(WannaCry)가 여기에 들어 있다. 이들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기록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총 950억 달러(약 11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혼돈의 지속'은 단순한 랩톱 컴퓨터가 세계 전체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을 상징하는 작품이라고 AFP는 평했다.

사이버보안 회사 딥 인사이트가 개설한 이번 경매 사이트는 작가인 귀오둥이 대해 "현대의 과도한 온라인 문화를 비평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매 주관사는 구매자가 이 작품에 담긴 컴퓨터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말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이 작품은 연구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입찰자는 계약상 어떠한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도 퍼뜨리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관사는 밝혔다. /연합뉴스

'YG 성접대 의혹' 말레이 前 총리 비자금 관리책 관심

조 로우 대변인 "친구 사이 통해 양현석 만났을 뿐"...의혹 부인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외국인 재력가를 상대로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말레이시아 전 총리의 비자금 관리책으로 알려진 인물이 언급되자 현지에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일간 더스타와 말레이시아키니 등 현지 언론은 MBC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지난 27일 방송 내용을 인용해 해외 도피 중인 금융업자로 택 조(38·일명 조 로우)가 양 대표에게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스트레이트는 한 목격자의 진술을 토

대로 양 대표가 2014년 7월 태국과 말레이시아 출신 재력가 두 명을 접대했고, 이 중 한 명이 조 로우라고 보도했다.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 로우는 국영투자기업 1MDB를 통해 45억 달러(5조3천억원)가 넘는 나랏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된 인물이다. 그는 나집 전 총리의 의붓아들 리자 아지즈와 함께 할리우드 영화에 자금을 투자하고, 미국 내 고급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빼돌린 돈을 세탁했다.

할리우드의 큰 손으로 부상한 그는 호화 생활을 하면서 2014년 한때 호주 출신 톱 모델 미란다 커와 교제하기도 했다.

미란다 커는 그에게 810만 달러(약 96억원) 상당의 보석류를 선물로 받았다가, 2017년 1MDB 횡령자금으로 조성된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미국 법무부에 전향 제출했다.

현지 언론은 조 로우가 2013년 총선을 앞두고 나집 전 총리가 이끌던 정당 연합 국민전선(BN) 행사에 당시 YG 소속이었던 가수 싸이가 등장해 공연하는 데도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조 로우는 2015년 1MDB 스캔들의 전모가 드러난 뒤에도 세계 각지를 돌아다

니며 호화 생활을 하다가 작년 5월 총선에서 나집 전 총리가 실각하자 잠적했다.

나집 전 총리는 배임과 반부패법 위반, 자금세탁 등 42건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과 받고 있다.

YG 측은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인 초대 받아 동석한 사실은 있지만 어떤 형식의 접대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조 로우의 대변인도 미국 내 변호사를 통해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조 로우는 싸이의 친구이고, 싸이를 통해 양현석을 만났다. 그는 MBC 보도에서 제기된 종류의 어떠한 행동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전 세대가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정

300여년 동안 전해진 위대한 유산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수입/배급 CBS

6월 13일 전국 극장 대개봉

SYNOPSIS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 당신의 이름은 크리스천!

희망도 기쁨도 없는 '말망도시'에서 살아야만 '크리스천'. 어느 날 발견한 한 권의 책에서 '천국도시'의 존재를 알게 된다.

웬지 모르게 책에서 눈을 땄 수 없던 그는 결국,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을 찾아 모두가 만류하는 무모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뛰어, 크리스천! 천국에 닿을 때까지!"

단체관람 신청 ☎ 062.376.8500 (광주CBS)

facebook.com/cbscinema TALK CBS시네마